



9면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 촉구 결의

전주매일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음 12월 11일) 제29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올 한해 전북도가 추진할 농생명 분야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생태문명시대 선도”

도, 농생명 분야
1조6394억 투자

올해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 1번지 전북도’를 실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사회적 농장 14개소를 육성해 따뜻한 전북 농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림찬 농민 - 청년창업농에게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율을 높여 재해에 대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깨끗한 축산농장을 1,080호까지 확대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한다. 더불어,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동물보호시설 확충 등 유기 동물관리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스마트 축사로 전환될 계획이다.

▲제값받는 농업 - 시·군별 먹거리 종합전달을 수립해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재단법인 전환 등 공공성을 강화해 먹거리 순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의 매출액을 지난해 대비 200억 증가한 4,700억 원을 달성하고, 농식품 수출 목표액 4.6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농지 4,500ha에 27억 원을 지원하고, 수확 후 발생되는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 토양환원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탄소배출 저감과 지력증진 등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지원을 확대 한다.

▲사람찾는 농촌 - 농식품부와 시·군의 농촌협약 체결을 확대해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주민 생활편의 증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을주민이 귀촌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귀농귀촌 동지마을 조성,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올 한해 친환경, 스마트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고, 농민이 행복한 심락농정 실현을 위해 1조6,394억 원을 투자한다. 도 농축산식품국은 2022년 농생명 분야에 스마트 농생명산업,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보림찬 농민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농생명산업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미생물 R&D 인프라 구축,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ICT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트를 고도화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 실습농장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본격 운영하고, 빅데이터 센터를 가동해 농가에 보급할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원예시설 스마트팜은 607억 원을 투자, 298ha를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축산분야도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13억 원을 투자해 총 44개 농장

“조속한 일상회복 선제대응 계획 필요”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송하진 도지사,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 지역 현장 의견 전달, 경구용 치료제 물량 확보 등도 제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막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자치안전, 경제민생 분야 등 분야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치안전 분야의 송하진 회장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고 있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하진 회장은 먼저, “방역과 민생·경제 현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65세 이상 적용 검토 중인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가능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경구용 치료제를 신속 도입하고, 체계적 보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과 어려운 환경속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 및 간호 인력에 대한 수당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12일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국민 체감 새만금 대변환” | 새만금청, 새해 업무계획 발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간척박물관 하반기 개관 등

양충모 청장 “새만금 선도
그린뉴딜 선보이는 첫 해”



12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의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 2단계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은 지난해 새롭게 정비한 기본계획(MP)과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그린·디지털 뉴딜종합추진계획,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 등을 통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의 대변환을 예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 확대, ▲수변도시·경제특구와 물류 인프라 추진, ▲관광·문화 및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미래산업 분야 투자유치 강화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내실화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 확대 - 먼저, 수상태양광·풍력 발전사업도 일부 연내 착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스마트그린 국가시험단지 지정을 연내

도 호텔을 상반기에 착공한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연내 준공하고, 운영방안을 설립해 하반기에 개관을 추진한다. 또한 생태관광이 가능한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환경부)을 추진하고, 에코슈벨트 2차 사업을 완료해 친환경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미래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 미래차 및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미래기술의 시험장으로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미래형 이동수단·자율주행·이차전지·친환경 기술 등의 실증사업을 발굴·유치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해 입주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단에 장기임대용지(36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한다.

양충모 청장은 “올해는 연초 재생에너지 발전 개시와 함께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본격화되는 등 새만금이 선도하는 그린뉴딜을 실제로 선보이는 첫 해이다”면서 “새만금의 대변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 되십시오!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자세로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열어가겠습니다.

※ 임중도원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백성들에게 ‘인’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임무는 죽은 뒤에나 그만두어야 하니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순창군